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미 증시, 그린란드 관세 철회 속 안도 심리 반영되며 3대지수 상승 마감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1일(수) 미 증시는 장 초반 다보스포럼에서의 그린란드 병합 관련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의 유화적 발언에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부재하다는 인식 속 하락 전환. 다만, 장 후반 유럽 8개국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 철회 소식 발표 이후 3대지수는 상승세로 마감(다우 +1.21%, S&P500 +1.16%, 나스닥 +1.18%)

이 날 미 증시는 다보스포럼에서의 그린란드 관련 트럼프의 유화적 발언('그린란드 병합 문제 관련 무력 사용하지 않을 것')에 힘입어 장 초반 상승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합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자 하락 전환. 다만, 장 후반 부가서 그린란드 관련 미래 합의 틀을 형성하고 유럽 8개국에 2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 증시는 급반등세로 전환.

트럼프 발언 하나 하나에 미 증시 내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나타난 것은 현재 시장이 트럼프 관세에 민감도가 높아졌음을 방증. 일단, 금번 관세 철회로 그린란드발 노이즈는 일부 완화되었지만 연초 이후 트럼프의 강경한 대외 정책 행보(베네수엘라, 이란, 그린란드 등)를 감안시, 향후 추가적으로 지정학 및 관세 관련 이슈가 금융 시장에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음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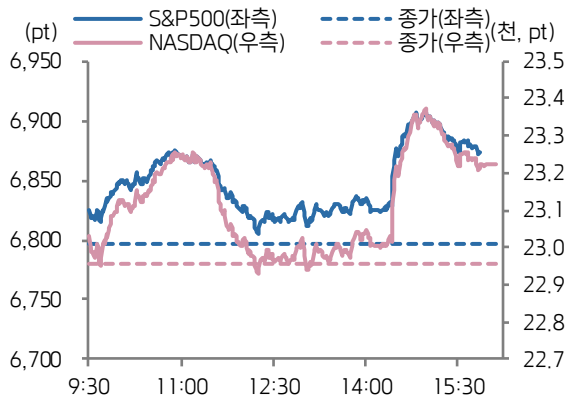
다만, 향후 재발할 수 있는 트럼프발 노이즈는 단기 변동성 이슈에 국한되며, 변동성이 야기한 조정은 매수 기회로 인식할 필요. 실제로, 이 날 트럼프의 관세 철회 결정은 유럽의 즉각적인 보복성 조치와 미국 금융시장 혼란이 주된 배경이라고 판단. 또한,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가운데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지지율 관리 측면에서라도 트럼프발 이슈가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흘러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지정학, 관세 관련 이슈보다는 차주 예정된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그린란드 관세 위협에 따른 미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현대차를 필두로 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되며 코스피는 상승. 다만, 바이오 개별 악재가 섹터 전반에 걸친 투자심리 악화로 이어지며 매물 출회가 이어진 결과 코스닥은 급락세로 마감(코스피 +0.49%, 코스닥 -2.57%).

금일 국내 증시는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 속 마이크론(+6.6%)을 필두로 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3.2%) 급등을 반영하며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코스피 5,000pt선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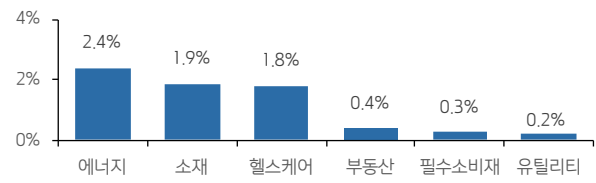
코스피 5,000pt까지 약 1.8%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연초 이후 대형주로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1월 누계 거래대금 기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3개 종목의 거래대금 비중이 코스피 내 36%를 차지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 기록. 이 같은 대형주 쏠림 장세가 지속된 결과 연초 이후 유가증권시장 내 코스피(+16.7%) 상승률을 상회한 종목 수는 81개 기업에 그치며, 약 90%가 넘는 기업들은 벤치마크 수익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 이를 감안시, 코스피 5,000pt선 돌파 이후 쏠림 및 과열 부담이 해소되는 숨고르기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 현재 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 여건을 감안할 경우, 시장 과열 해소되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여타 종목으로의 자금 순환 나타나며 시장 내 상승 종목 수 확산될 것으로 판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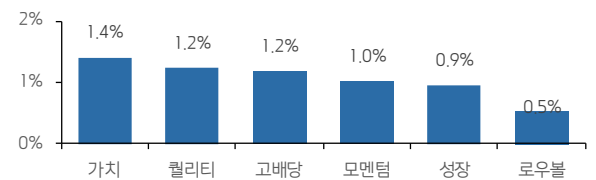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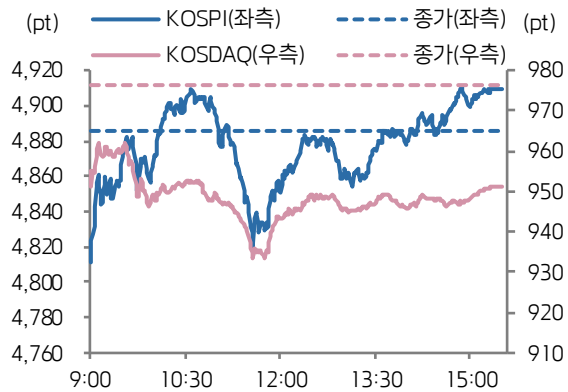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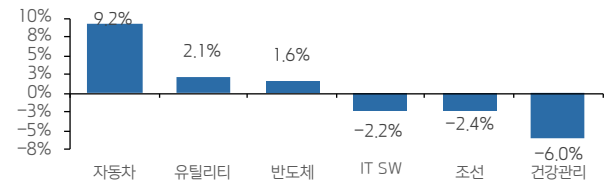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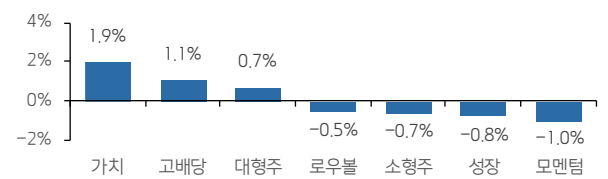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47.65	+0.39%	-8.91%	GM	80.93	+4.01%	-0.48%
마이크로소프트	444.11	-2.29%	-8.17%	일라이릴리	1,078.52	+3.58%	+0.36%
알파벳	328.38	+1.98%	+4.91%	월마트	119.36	+0.55%	+7.14%
메타	612.96	+1.46%	-7.14%	JP모건	302.04	-0.23%	-6.26%
아마존	231.30	+0.13%	+0.21%	엑손모빌	133.61	+2.41%	+11.03%
테슬라	431.44	+2.91%	-4.06%	세브론	166.73	+0.87%	+9.4%
엔비디아	183.18	+2.87%	-1.78%	제너럴일렉트릭	119.36	+0.5%	+7.1%
브로드컴	328.80	-1.14%	-5%	캐터필러	645.38	+2.6%	+12.66%
AMD	249.67	+7.65%	+16.58%	보잉	250.07	+0.43%	+15.18%
마이크론	389.11	+6.61%	+36.33%	넥스트에라	83.85	+0.4%	+4.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4,909.93	+0.49%	+16.51%	USD/KRW	1,465.90	-0.73%	+1.83%
코스피200	714.94	+0.91%	+17.98%	달러 지수	98.79	+0.15%	+0.47%
코스닥	951.29	-2.57%	+2.79%	EUR/USD	1.17	-0.34%	-0.52%
코스닥150	1,548.11	-4.83%	+0.05%	USD/CNH	6.96	+0.07%	-0.22%
S&P500	6,875.62	+1.16%	+0.44%	USD/JPY	158.36	+0.13%	+1.05%
NASDAQ	23,224.82	+1.18%	-0.07%	채권시장			
다우	49,077.23	+1.21%	+2.11%	가격	DTD(bp)	YTD(bp)	
VIX	16.95	-15.63%	+13.38%	국고채 3년	3.130	-5.3bp	+17.9bp
러셀2000	2,698.17	+2%	+8.71%	국고채 10년	3.597	-4.9bp	+21.2bp
필라. 반도체	8,042.07	+3.18%	+13.54%	미국 국채 2년	3.589	-0.8bp	+11.6bp
다우 운송	18,412.80	+3.1%	+6.08%	미국 국채 10년	4.247	-4.6bp	+8bp
상해종합	4,116.94	+0.08%	+3.73%	미국 국채 30년	4.865	-5.4bp	+2.2bp
항생 H	9,122.95	+0.31%	+2.35%	독일 국채 10년	2.882	+2.3bp	+2.7bp
인도 SENSEX	81,909.63	-0.33%	-3.89%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5,882.88	-0.16%	+1.58%	WTI	60.62	+0.43%	+5.94%
MSCI 전세계 지수	1,022.27	-1.45%	+0.75%	브렌트유	65.24	+0.49%	+7.21%
MSCI DM 지수	4,438.23	-1.58%	+0.18%	금	4,837.50	+1.5%	+11.43%
MSCI EM 지수	1,480.63	-0.4%	+5.43%	은	92.64	-2.11%	+31.21%
MSCI 한국 ETF	115.66	+4.23%	+18.97%	구리	576.80	-0.77%	+1.51%
디지털화폐				BDI	1,729.00	+4.79%	-7.88%
비트코인	90,126.54	+0.85%	+2.83%	옥수수	421.75	-0.47%	-4.2%
이더리움	3,033.34	+1.45%	+1.87%	밀	508.25	-0.39%	+0.25%
				대두	1,065.00	+1.14%	+1.67%
				커피	347.50	+0.29%	-0.3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월 21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